

◎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1996년도 표어 ◎

“성숙한 교회를 이루자” (엡4:13)

◎ 생활지침 ◎

섬기는 생활
주는 생활
경건한 생활

발행인: 이종윤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02) 517-7651 ~ 5 팩스 (02) 512-1225

'97 서리집사 818명 오늘 임명

교구장, 지역장, 다락방장, 권찰 등 교구일꾼 임명식도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 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를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 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딤후3:8-13)

이러한 성경의 요건에 맞춰 선정된 서리집사의 임명식이 오늘 거행된다.

교회는 1997년도 우리교회 서리집사 임명식을 I, II, III부 예배 시 갖는다.

오늘 임명되는 서리집사는 남자가 315명, 여자가 503명으로 모두 818명이다. 이는 금년도 서리집사 715명보다 103명이 늘어난 것이다.

오늘 임명되는 서리집사 중 신임은 103명이다. 이들은 당회의 추천을 받아 지난 11월 면접과 교육을 거쳐 오늘 임명을 받게 되었다.

교구일꾼 임명

또한 집사 임명식에 이어 12개 교구의 교구장, 126명의 지역장과 237명의 남·여 다락방장, 160명의 권찰과 12명의 교구간사 등 교구일꾼 임명식도 갖는다. 임명된 교구일꾼들은 오늘 열리는 교구 총회에서 각 교구 식구들과 만남의 시간을 갖게 된다.

다음 주일 찬양대원 임명

다음 주일 낮 예배 시간에는 가브리엘·할렐루야·임마누엘 찬양대원을 각각 임명한다. 그리고 찬양예배 시에는 베들레헴 찬양대원 임명식이 있다. 호산나찬양대원과 시온찬양대원은 수요일·II부 예배 시 각각 임명을 받는다.



지난 주일 장로 임직식과 선교사파송식이 있었다.

97년 순결서약식

12월 15일까지 신청받아 미리 반지크기 기재 요망

교회는 내년 1월 5일 찬양예배 시 거행될 순결서약식에 참여를 원하는 성도들의 신청을 15일(주일)까지 받는다.

대상은 13세 이상의 미혼자로 앞으로 결혼전 순결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결심을 하는 모든 사람이 해당된다.

신청은 사무국에 비치된 신청서를 교부받아 작성한 후 교육위원회에 제출하면 된다.

순결서약식에서는 참가자들이 주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으로 자신을 깨끗하게 지키겠다는 서약을 하게 되며 항상 서약을 상기할 수 있도록 '순결반지'가 주어진다. 따라서 신청서에는 자신에게 맞는 반지의 크기를 기재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되는 안내책자를 참고하거나 교회학교의 담임 교사 혹은 교구 담당 교역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순결서약식은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펼치고 있는 '정직·절제·사랑실천운동'의 일환으로 시작되어 우리 교회가 교회 차원에서 가장 먼저 1995년 첫 주에 서약식을 개최한 바 있다.

현재 이 운동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실시되고 있다.

우리 교회에서는 작년에 322명, 올해는 100명의 청소년이 순결서약식에 참가하였다.

III부 예배 후 교구총회

교구총회가 오늘 3부예배 후 1층 예배실에서 열린다.

오늘 모이는 교구총회는 새로 임명된 교구장, 지역장, 남·여 다락방장, 권찰, 교구간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 서로 인사를 나누기 위한 것이다.

교구총회를 마친 후에는 별도의 교구별 속회가 열린다. 이 속회에서 교구일꾼들은 담당 교역자와 인사를 나누고 내년도 교구

행정과 교구활동 계획을 수립하며 교구활성화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된다.

▼교구별 속회장소

교구	장소
1·2	3층 소망부실 (302호)
3·4	1층 예배실 (101호)
5·6	1층 예배실 (101호)
7·8	3층 찬양대실 (303호)
9·10	1층 예배실 (101호)
11·12	3층 찬양대실 (301호)

권사회 정기총회

권사회(회장 방계운 권사) 총회가 6일(금) 오후 7시 2층 예배실에서 개최된다.

이날 총회에서는 정·부회장 임명과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가 있을 예정이다.

12월 학습·세례식

올 마지막 학습·세례식이 18일(수) I·II부 예배 시에 거행된다. 교육은 16일(월), 문답은 17일(화) 오후 7시 4층에서 갖는다. 문의는 새가족부로 하면 된다.

창세기 강해



“내가 믿을 수 있는 것”

(창세기 45장 25 - 28절)

이종윤 목사

인간의 인격은 지·정·의로 구성됩니다. 신앙인격도 역시 이 세가지가 구비되어야 합니다.

지식은 매우 중립적인 것입니다. 누구에 의해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따라 선하게 될 수도, 악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감성은 죄로 오염되었기 때문에 우리 신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요셉이 살아있더라”라고 전달하는 아들들의 말을 야콥은 믿지를 않습니다. 그의 감성이 지식을 누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초지종을 듣고 바로가 보낸 마차를 보고 나서야 “내 아들 요셉이 살아 있더라 내가 내려가 죽기 전 그를 보리라”(28절)라고 합니다.

야콥의 말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보고자 합니다.

믿음의 장부 아브라함이나 오랜 세월 하나님만을 믿은 요셉과 같은 이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들은 우리와는 아주 다른 어떤 인물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들에 비하면 왜소해 보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고 있음도 발견합니다.

그러나 야콥의 경우는 다릅니다. 그가 압박 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하여 환도 뼈가 부러지기 전까지만 해도 그는 신실한 신자라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의 신앙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베냐민을 데려가는 것이 자신을 해롭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36절).

1.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 한 야콥

아들들이 요셉의 피묻은 옷을 가져왔을 때 야콥은 확인하려하지 않고 체념하고 낙담했습니다. 야콥은 거친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야콥은 고난의 가시밭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이 요셉이 당한 것같은 무죄한 자로서의 고통은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일에 실패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야콥에게 문제가 있다면 불안정한 감성입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서 바로왕을 만난 야콥은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일백 삼십년이

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셨나이다”라고 말합니다. 야콥은 자기 인생역정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믿음이 강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2.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한 야콥

요셉이 죽었다는 거짓 사실은 쉽게 믿은 야콥이, 요셉이 살아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믿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것, 우리의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가셨고 다시 오신다는 것과 같은 좋은 소식을 공상적이야기로 치부하려 합니다.

야콥의 모습이 우리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의 경험과 환경과 감정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닙니까? 좋은 소식, 귀한 소식을 믿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까? 이제 성경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과 주님이 함께 걸으신 것처럼 주님과 함께 걸을 때 우리에게 계시하신 부활의 주를 볼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3. 믿음이 소생한 야콥

야콥은 나쁜 소식에 쉽게 귀를 기울이고 슬픔에 젖어 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살아있다는 희소식은 들려줍니다.

야콥은 요셉이 살아있음을 보고 온 아들들과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형들은 그간 요셉이 어떻게 지냈으며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거기까지 인도하셨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만약 야콥이 그같은 질문을 했다면 형들은 ‘잘 모른다’라고만 대답하였을 것입니다. 그들이 아는 것은 다만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이며 이 사실의 증인으로 아버지께 돌아온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이들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의 권능과 다스리심을 이미 보고 체험한 이들에 의해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형들은 아버지 야콥에게 요셉의 생존 사실

을 말하면서 자신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았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죄를 감추기 위해 필요한 거짓말을 했을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 죄를 자연스럽게 고백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핑계하려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죄를 고백하여야만 합니다.

야콥은 요셉이 보낸 황금마차를 보고서야 비로소 환희에 넘치는 복된 소식을 받아들입니다. 애굽에서 온 수레는 영적으로 오순절의 성령님에 비유되기도 합니다. 성령님께서 오심으로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재림의 사실을 믿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믿음이 소생한 야콥은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변하여 호명됩니다. “이스라엘이 가로되 죽하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28절).

의심과 불안, 불신앙은 변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힘입어 믿음으로 날마다 기뻐하는 생활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 순례자 컬럼 ✧

“당신도 변할 수 있다”

도저히 변할 수 없는 사람도 변하여 새 사람 되게 하는 것이 종교요 신앙이다. 나같은 사람도 변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 이들이 있을 것이다. 물론 변할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대답이다.

외적인 구조나 습관을 바꾸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내적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 변해야 할 ‘나’라는 존재가 몸 밖에서 나를 조종하고 있지 않은가.

심리적 변화나 안목이 바뀌는 것으로는 안 된다. 변해야 할 ‘나’는 자신과 세상만을 알고 시공의 세계에서 불안, 허무, 공포 속에서 아직도 신음하고 있지 않은가. 그것은 영원자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돌이키라. 그 분에게 돌이키는 자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보일 것이다. 당신도 변할 수 있다. 그 분의 초청에 응하기만 하라.

새가족이 되어서 - 김사라 (4월 등록)

“이제는 그 사랑 보답하고자”

내 이름은 사라. 한국이름으로는 드문 이름이라 어릴 때는 ‘점씨’라는 놀림도 많이 받았다. 그런데 이 이름은 신앙이 깊으셨던 부모님께서 아브라함의 부인이자 믿음의 어머니인 사라처럼 되라고 지어주신 이름이었다. 특히 어머니는 무릎에 못이 박히도록 기도하시던 분이셨고, 나는 그 힘으로 오늘도 산다는 생각을 하곤한다. 그렇게 부모님을 따라 자연스럽게 신앙생활을 한 나는 서울로 이사를 오면서 30년 넘게 다니던 교회를 옮기게 되었다.

정착할 교회를 찾기 위해 기도하면서 몇몇 교회를 다녀보았다. 그러는 가운데 교회를 옮기는 일은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임을 실감했다.

어느날 성령님께서 발걸음을 서울교회로 인도하셨다. 서울교회에 들어서서는 어릴 적 엄마 치마를 잡고 따라다녔던 사랑많은 교회에 떠올랐다. 서울교회에는 나이 많은 분들도 많이 계셔서 안정감이 있고 직업의 종류, 나이, 배경 등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분위기가 흡족했다. 이곳에서는 말씀과 기도, 교육과 봉사에 각자의 은사를 따라 제 몫을 하고 있다고 느껴졌다. 목사님들과 교회 어른들이 기도를 참 많이 하시는 분이라는 것도 느낄 수 있었다.

올해 1월부터 참석하기는 했지만 3개월간

은 등록을 하지 않고 예배에만 참석했었다. 결단을 내리고 4월에 등록하면서 처음으로 위임목사님을 가까이서 뵈었다. 목사님이 먼저 자신을 소개하신 후 새로 등록한 사람들이 각자 자기 소개를 하는 것이 재미있었다.

나는 모태신앙인이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새가족부에 들어가 새신자를 위한 과정을 마쳤다. 예수님은 누구신지, 예배는 어떻게

안정되고 격의 없는 분위기에 매료

3개월간 다니다 등록 결심

찬양대 · 김치세미나 봉사 기회 감사

드려야 하는지 등 어려서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이야기지만 다시 정리해서 들으니 새로웠다. 특별히 예배 시작 15분 전까지는 교회에 도착하여 기도로 준비하고 그날 받을 말씀과 부를 찬송가를 미리 찾아두어야 한다는 가르침을 기억하며 꼭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일찍 나와서 준비하면 훨씬 더 경건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새가족부에서 지도 목사님의 자상하신 가르침, 복음성가를 가르쳐주시던 집사님과 항상 안부를 친절히 물으시고 개인적으로 많은 관심을 쏟아주시는 담임 선생님(집사님)··· 서울교회처럼 큰 교회에서 개인에게 이렇듯 관

심과 사랑을 쏟아주는 일이 가능하다는 것이 놀랍다. 등록하던 날 위임목사님과 함께 찍은 기념사진을 사무실 책상에 세워두고 늘 보면서 많은 분들의 사랑과 관심에 크게 감사하고 있다.

새가족부를 수료하면서 봉사할 곳을 찾았다. 봉사라고하지만 실은 나에게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등록금을 내야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하곤한다. 할렐루야찬양대에 입대하여 너무도 좋은 분들과 교제하면서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드리고 있다. 또한 김치세미나 때 통역할 기회가 내게 주어진 적이 있었다. 학교 졸업 후 거의 하지 않던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힘 주시는대로 할 수 있었다.

김치세미나에서 봉사한 후로부터 요즈음은 시간나는대로 목사님의 설교와 주보의 설교요약을 가지고 통역연습을 해본다. 꼭 다시 쓰임받으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하는 일이다. 그러나 늘 미루던 숙제를 할 때처럼 자신감같은 것이 생겼다.

서울교회에 참석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하게 되었다. 개인적으로는 내가 아는 분들이 서울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게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다.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어떻게 응답하실지···

생활 속의 이야기 - 김봉수 (할렐루야찬양대원)

“전화 한 통화로 찾은 말씀”

어느 깊어가는 가을날, 한 여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25년 전 학창시절 키가 가장 커서 눈에 띈었던 여학생이었다. 이제는 중년이 된 그녀가 전화를 한 용건은 차량보험에 가입하지 않겠느냐는 것이었다. 사실 그때 내 차의 보험기일이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이런저런 핑계로 얼버무렸다. 그러나 전화한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면 내 마음은 편치 않았다.

그 일을 잊어갈 즈음, 추석연휴에 우리 교회에서 열린 성경통독사경회에 참석하게 되었다. 양과 같이 제 길로 가는 인생, 선지자들의 회개의 외침, 공홀이 풍성하시나 한편으로는 공의로우시고 두렵고 엄위하신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가운데 한 말씀에서는 정말 시선을 땔 수 없었다. 예루살렘의 죄를 지적하는 에스겔 선지자의 음성, “그들이 네 가운데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네 가운데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네 가운데서 고아와 과부를 학대하였도다.” 고아

와 과부와 나그네를 업신여기지 말고 사랑하고 도와주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양심을 마구 두드렸다.

전화를 준 분은 내 동문친구였던 남편과 사고로 사별하고 두 아들을 홀로 키우고 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었다. 내게 전화하기까지는 매우 어렵게 용기를 내었을텐데··· 후회하고 괴로운 마음까지 들었다. 나 역시 다시 전화하기에는 용기가 필요했으나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것 같았다. 아울러 나의 어렵고 죄 많고 연약했던 나의 옛 모습들이 떠올라 회개하게 되었고, 실행일치의 삶을 강조하신 목사님의 말씀이 떠올랐다. 비전2000운동 기간 중 이어서 전도도 할 겸 전화를 했다.

마침 그때 그 여자는 가까이 출석할 교회를 찾고 있다고 했다. 현재는 우리 교회에 등록하여 기쁨으로 봉사하고 있다.

그분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다가 믿지 않는 가정으로 결혼을 하게 되었으나 남편도 세상을 뜨기 전 예수님을 영접하였고 시댁 식구 모두가 이제는 예수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었으니 어쩌면 그 가정의 선교사로 파송되었던 여종이였는지도 모른다. 한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참으로 놀랍고 오묘한 것임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창세 전에 택하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찬양치 않을 수 없었다.

이 사건은 내 생활 속의 작은 일이었지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는 말씀을 맛보아 알게 된 기회가 되었다.

12월 행사 게시판

일자	행사
1일	서리집사 · 교구일꾼 임명식 교구총회 비전2000운동 시상식
6일	권사회 총회
8일, 11일	찬양대원 임명식
14일	스테반회 총회
15일	교회학교 교사 임명식
18일	학습 · 세례식
21일	성탄축하 성곡공연
25일	성탄절 예배
29일	12월 새가족환영회
31일 ~ 1월 1일	송구영신예배

환영합니다. 새가족 여러분!

오늘 찬양예배 시 11월 새가족 환영회

* 11월의 새가족 *

천병조 한부영 김 훈 조민주 김창배
한일희 엄희관 홍승자 김기복 김필환
권상민 이태영 장월분 라여주 백일선
박남순 이광열 최 원 김율리 천옥례
김갑길 정영자 김은정 김보정 김대연
전장복 한난숙 최영자 정진환 김성운
이미경 전진영 김창선 권문조 장윤경
진승복 유경택 고계원
그리고 오늘 등록하신 분

★ 대강절에 - 성탄절의 유래와 풍습 ①

왕의 탄생 연월일에 대한 논쟁

우리나라를 비롯 대부분의 나라에서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킨다. 그러나 이 날이 정말 예수님께서 태어난 날일까?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출생 연월일에 대한 언급이 없을 뿐 아니라 아무도 그 날을 알 수 없다.

어떤 사람들은 12월 25일이 아닌 다른 날을 성탄절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서방교회는 처음엔 1월 6일을 성탄일로 축하했다. 동방교회에선 성탄일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두번째 생일에 동방박사들이 찾아온 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은 날, 그리고 30세 때 처음 기적을 행하신 날도 1월 6일이라고 주장한다.

12월 25일 예수님이 나셨다고 가장 일찍이 주장했던 사람은 3세기 사람인 히폴리투스(165 - 235). 예수님의 수태교지가 3월 25일에 있었으니 당연히 9개월 후인 12월 25일이 생일일 것이라고 그는 추정했다. 로마의 주교 율리우스도 사가랴가 환상을 본 날을 근거로 12월 25일을 주장했다.

탄생 연월일은 분명하지 않더라도 그리스도께서 주전 4년 이전에 출생하셨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확증되고 있다.

기록상 가장 먼저 지켜진 성탄절은 373년 콘스탄티노플. 11세기의 저술에 이 기록이 남아있다. 지금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12월 25일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던 날로 기억하고 기념하고 있다.

첫 성탄절 행사 이후 1천6백 여 년이 지난 오늘날 성탄절은 세계인의 명절로 확고히 자리잡고 있다. 모두가 즐거워할 이날 궁핍과 상대적인 외로움에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도 가까이 있음을 잊을 수 없다. 그 날짜가 언제이든 예수님의 주신 사랑과 희망을 나누는 날이 성탄 정신을 구현하는 진정한 의미의 성탄절이 될 것이다.

★ 대강절이란? 대강절이란 교회력(敎會曆) 상으로 성탄절을 앞둔 네 주 동안의 기간을 말한다. 의미상으로는 주의 날(the day of the Lord; the Great Day)을 대망하는 절기이다. 우리는 이 기간동안 예수님의 초림을 기억하고 이를 축하할 뿐만 아니라 이제 곧 다시 오실 예수님을 대망하며 이를 준비하는 절기로 삼는다. 즉 대강절이란 이미 도래한 주의 날을 기리고 장차 다가올 주의 날을 바라며 준비하는 절기이다.

1997년도 교구위원회

교구위원장 김광신 장로 교구위원회 지도 이순환 목사

교구	지도	교구장	다락방
1	박귀환	오정수 (임광식)	논현, 신사, 청담, 압구정, 삼성
2	박귀환	정병무 (이용선)	역삼, 개나리아파트, 영동아파트, 성보아파트
3	이성득	성준경	대치, 도곡, 개포, 일원, 수서, 자곡, 내곡, 세곡
4	이성득	김태기 (김상철)	반포, 잠원, 서초, 방배, 양재
5	원 호	홍정호	과천, 안양, 의왕, 평촌, 남현, 사당, 흑석, 봉천, 상도, 신림, 군포, 수원
6	원 호	김광신	영등포, 양천, 강서, 구로, 광명, 부천, 인천
7	임진태	김대호 (나희주, 김영준)	용산, 중구, 종로, 마포, 서대문, 일산, 고양, 은평
8	임진태	이영기	삼선, 안암, 미아, 수유, 우이, 쌍문, 월계, 상계
9	이순환	윤봉준	중곡, 구의, 자양, 성수, 홍마, 금호, 동대문, 중랑, 남양주, 미금
10	이순환	노문환	둔촌, 길동, 명일, 광주
11	김명현	박철환	신풍, 잠실, 송파, 휘미리, 가락, 문정, 오금, 올림피, 방이
12	김명현	최종시 (이남호)	성남, 분당, 수지, 신갈, 용인

비전2000운동 시상식

지난 주일 시간관계상 갖지 못한 비전2000운동 승전보고가 오늘 찬양예배 시에 거행된다. 50일간의 비전2000운동의 결과를 점검하고 이에 대한 시상식을 갖는다.

교사추가 모집

교육위원회에서는 15일(주일)에 있을 1997년도 교회학교 교사 임명식을 앞두고 추가 모집을 하고 있다. 신청서는 사무국에 비치되어 있으며 문의는 교역자실로 하면 된다.

■ 이종운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837K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천기독교방송(HLDC 93.7M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극동방송(HLKX 1188KHz)	「생명은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대전극동방송(HLAD FM 93.3MHz)	「늘푸른 초장」	주일 오후 10시 ~ 10시 45분
아세아방송(HLAZ 1566KHz)	「라디오 강단」	주일 오전 8시 30분 ~ 9시
	「새벽의 강단」	금요일 오전 4시 20분 ~ 4시 50분

서울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1997년도 서리집사와 교구일꾼들을 위하여
2. 새가족의 신앙성숙을 위하여
3.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12월이 되도록
4. 병상에 있는 성도들의 쾌유를 위해
5.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예배당 건축을 위하여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주일 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III부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교회위치

